

2022 Better Energy for Us & Earth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05(우정동) T 052-216-2114 F 052-216-5900
www.knoc.co.kr blog.naver.com/knoc3 youtube.com/knocpr



2022 Better Energy for Us & Earth



에너지 안보의 수호자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신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저탄소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공헌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조기에 안착시키겠습니다.



주요사업개요



열정과 도전으로 에너지 안보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합니다.

한국석유공사는 기존 사업의 가치를 높여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공사의 역량과 기술, 네트워크와 자산을 활용해
저탄소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석유개발사업

17개국 31개 사업
일일생산량 136천 배럴
매장량 1,058백만 배럴



석유비축사업

비축기지 9개(전국)
비축시설 용량 146백만 배럴
비축유 확보 98백만 배럴



유통구조 개선사업

— 알뜰주유소 사업 —
운영 1,266개
(자영 431개, ex 186개, NH 649개)
— 석유정보 서비스(석유정보망 운영) —
오피넷 이용자 138백만 명/연



신재생 에너지 사업

— 수소에너지 사업 —
국내외 공동협력 추진으로 사업기반 구축
— CCS 사업 —
기본설계 및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 2021년 말 기준

석유개발사업

한국석유공사는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국내 및 해외 각지에서 석유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현재 총 **17**개국에서 **31**개의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석유개발

한국석유공사는 1998년 울산 앞바다에서 양질의 가스층을 발견, 동해 가스전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오랜 산유국의 꿈을 실현했습니다. 이후 2020년에는 6-1 중부, 동부광구 조광권을 획득해 2021년 방어구조 탐사시추를 수행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현재도 국내 자원확보를 위한 유망구조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석유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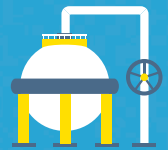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40여 년간 확보한 석유개발 분야의 탐사, 개발, 생산 기술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유전개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0년 베트남 15-1광구에서 대규모 원유를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중앙아시아에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했으며 특히, 2019년 영국 북해 '톨마운트'광구에서 양질의 가스를 추가 발견하고, 같은 해 UAE 할리바 유전에서 원유 상업생산 개시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석유비축사업

한국석유공사는 1979년 설립 이래 국가 석유비축사업을 추진,
국내 수급 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비축유 및 비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앞으로도 국가 석유수급안정과 위기대응능력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축기지 운영



9개

시설용량



146 백만 배럴

비축물량



98 백만 배럴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107**일간 국내 순수입량에 해당하는 비축물량



*IEA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석유타레이딩

한국석유공사는 비축자산을 활용해 석유타레이딩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석유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활용해 원유, 석유제품, LPG트레이딩 거래를 실시하고, 그 수익을 비축유 자체증량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축시설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산유국 등의 물량을 유치, 저장하여 저장수익을 확보하는 국제공동비축사업, 국내 석유수급 차질 시 국내 정유사 등 민간 기업에 비축유 및 비축시설을 적기 지원하는 비축자산 대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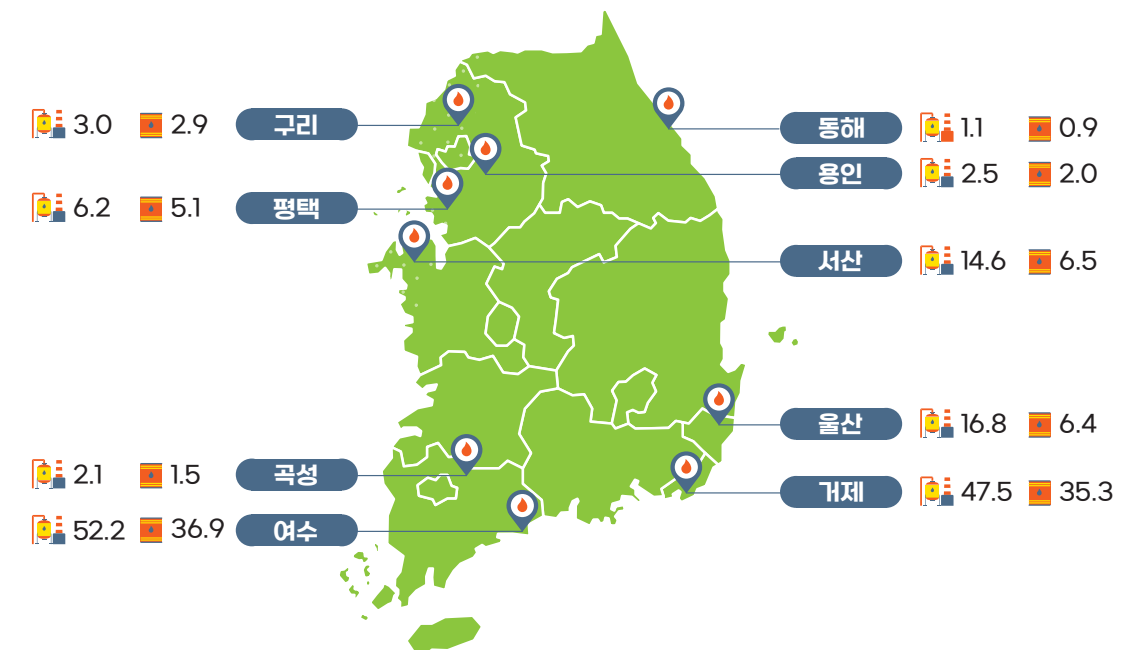
에너지허브

한국석유공사는 우리나라를 오일, 가스 관련 물류 및 금융 거래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동북아 에너지허브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818만 배럴 규모의 시설을 운용 중입니다. 울산에서는 총 440만 배럴 규모의 상업적 탱크터미널을 건설하는 북항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남항사업은 타당성 조사 후 신규 사업방향성 및 사업모델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에너지허브가 조성되면 석유 및 액화가스 연관 산업의 발전과 수급 안정화와 더불어, 트레이딩, 물류서비스, 금융 등 신산업 유치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축유 보유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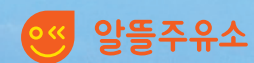


시설용량 비축물량

※ 2021년 말 기준 (단위: 백만 배럴)

유통구조 개선사업

한국석유공사는 공동구매 및 유통단계의 비용절감 등을 통해
보다 저렴한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알뜰주유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유가 시대에 유류 물가안정 및 석유유통시장 개선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알뜰주유소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제품 유통체계 개선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알뜰주유소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석유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국민 에너지 가계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1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 말 현재 1,266개의 알뜰주유소를 운영 중이며 전국주유소 대비(국내 주유소판매평균가격 대비) 리터당 30원 저렴한 가격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피넷 www.opi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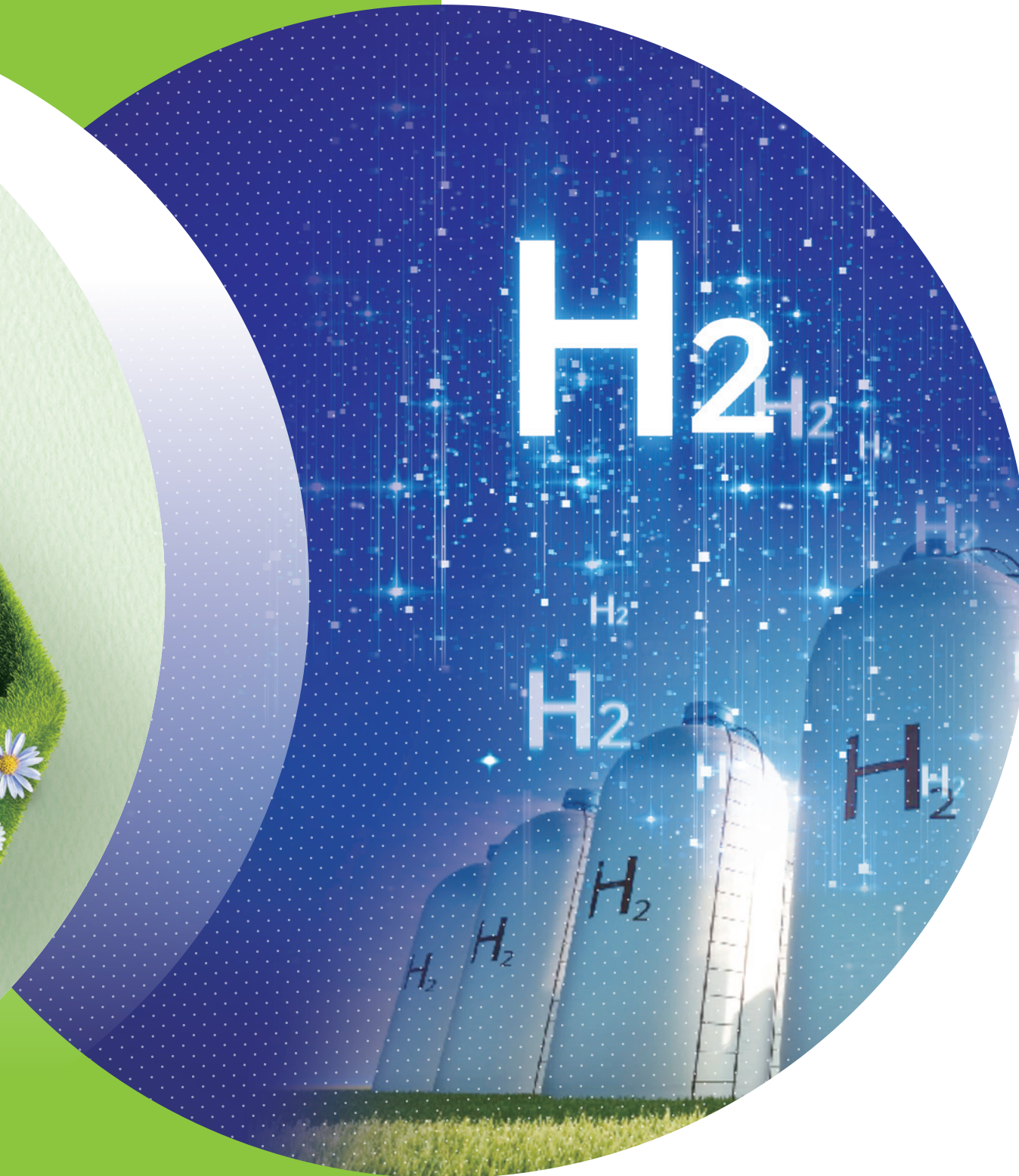
한국석유공사는 일평균 38만 명이 이용하는 실시간 국내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을 운영하여 국민 생활편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약 1만 1,000개의 주유소와 2,000여개의 LPG 충전소의 판매가격 정보를 오피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트로넷 www.petronet.co.kr

한국석유공사는 국내유일의 종합석유정보망 페트로넷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트로넷을 통해 국내외 유가, 수급동향, 석유개발 현황, 분석정보 등을 국민, 정부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에 제공하여 정부의 석유 정책 수립, 학계의 연구,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한국석유공사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그린 에너지 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역량과 기술, 네트워크와 자산을 적극 활용해 탄소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수소에너지 사업

한국석유공사는 암모니아와 수소의 생산, 도입, 비축, 유통 사업을 통해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수소 중심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외 공동협력을 추진하여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EOR(Enhanced Oil Recovery)과 연계한 수소·암모니아 생산 참여를 추진할 것입니다.

CCS 사업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이산화탄소 저장시설의 구축 및 운영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사업인 CCS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1년 말 생산이 종료된 동해가스전의 생산정 및 해양시설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3~2025년 중규모 주입실증 시설을 구축, 2025년 연간 40만톤 주입할 계획이며, 2029년 대규모 실증 1단계 주입을 목표로 저장소의 확장 및 상용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한국석유공사는 2026년 실질적인 전력생산을 목표로, 국내 최초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생산종료된 동해가스전의 플랫폼을 재활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조선기자재 등 발전 관련 산업의 활성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고, 2025년까지 200M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2026년 상업운전 할 계획입니다.

ESG경영

한국석유공사는 임직원, 사업장 근로자, 지역주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에너지 기업이라는 **新安전경영**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 저감 활동과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 조성

사업장의 예방중심 안전 활동으로 21년 연속 무재해를 유지하였고, 공사는 PSM* 대상 사업장 P등급 비율이 80%로 전국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CEO의 **新安전경영** 철학인, ‘나뿐만 아니라 동료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능동적 안전문화’인 Active Caring 실천과 Safety Talk 시행 등으로, 5년 연속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였습니다.

*PSM(공정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의 안전 관리상태를 P(우수), S(양호), M+(보통), M-(불량)등급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국민안전사회 실현

코로나19 지속과 이상기후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등급’, 안전관리 등급제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비축기지의 드론테러 대응을 위하여 기지 특성에 적합한 최신 기술인 안티드론 방호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공사의 방호체계에 대해 해외파트너사인 UAE ADNOC에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여 국내 기술의 해외수출을 목표로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경영

저탄소·친환경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과 CCUS 탄소중립 신사업에 재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를 10년 연속 달성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사회공헌

한국석유공사는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파트너로 도약하고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특히 장애인 고용분야에 집중하여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증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스포츠직무 직원을 채용 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조기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복지 사각 지대 해소, 다문화가정학생장학금, 해안지역 플로깅 등 다방면의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실행했으며, 그 결과 지역문제 해결 유공 울산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